—31—

^{99m}Tc-DISIDA 신티그래피를 이용한 간세포암 전이의 진단

가톨릭의과대학 방사선과학 교실

김성훈,백준현,김영주,박석희,정수교,박용휘,신경섭

간세포암의 전이가 있을 때 ^{99m}Tc-DISIDA 신티그래피에서 전이병소의 소견을 알아보고 원발병소의 소견과 비교하고자 하였다.

1993년 9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된 환자중 ^{99m}Tc-DISIDA 신티그래피를 시행한 25명 가운데 X선이나 CT 검사상 폐전이 4예, 골전이 1예, 임파선전이 5예, 우심방전이 1예, 복막 및 복벽전이 1예를 대상으로 하였다.

폐전이가 있었던 4 명중 3 명에서 전이병소에 방사능이 집적되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간의 원발병소에서도 방사능 섭취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1 명에서는 원발과 전이병소 모두에서 방사능 집적을 볼 수 없었다. 복강 및 후복강내 임파선 전이가 있었던 5 명 전부에서 전이병소의 방사능 섭취를 관찰할 수 없었는데 4 명에서는 원발병소에도 방사능이 섭취되지 않았고 나머지 1 명에서는 원발병소에서도 방사능 집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. 제 2 요추체에 골전이가 있었던 증례는 폐전이도 함께 있었고 폐전이 병소에는 방사능 집적을 보였지만 골전이 병소에는 방사능 집적을 관찰할 수 없었다. 우심방과 복막 및 복벽 전이가 있는 한 환자에서 전이병소 두 곳과 간의 원발병소 모두에서 같은 시간대부터 방사능 섭취가 강하게 나타났다.

간세포암의 원발병소에 DISIDA가 집적되는 경우, 같은 시간대에 폐, 우심방, 복막 및 복벽의 전이병소에도 방사능 집적이 일어났고 임파선이나 골전이 병소에는 원발병소의 소견과 관계없이 방사능 집적을 관찰할 수 없었다.